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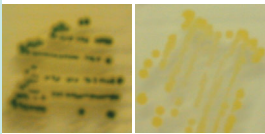
‘모유’ 우리 아기 평생건강...



★ 모유의 장점

모유는 가장 바람직한 신생아의 음식입니다.

- 아기의 턱과 치아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.
- 아기에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.
- 면역 글로블린을 함유하고 있어 아기에게 질병에 대한 강한 면역성을 길러줍니다.
- 엄마와 아기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로 정서 발달을 향상시킵니다.
- 뇌와 신경 등 발달에 중요한 타우린, DHA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
사카자키균이란? (Enterobacter sakazakii)

- 6개월 미만 영·유아에게서 뇌막염 또는 장염을 유발합니다.
→ 4주 이내의 신생아나 2.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사망에 이르기기도 합니다.
- 치료 후에도 시신경 등 신경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모유만 먹는 아이에게서 사카자키 감염이 보고된 바 없습니다.
- 끓는 물 (70℃ 이상)에서는 사카자키균이 사멸됩니다.



모유 수유

“우리 아기 평생건강 첫걸음”



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(www.kihe.re.kr)
440-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몽골길13(파장동)
TEL : (031) 250-2526 FAX : (031) 250-2617



저출산 시대 올바른 수유방법





올바른 젖병 소독법



● 세제와 브러시를 이용하여 젖병과 젖꼭지를 깨끗이 씻습니다.



●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세척합니다.



● 끓는 물 또는 소독기를 이용하여 젖병과 젖꼭지를 소독합니다.



● 청결한 장소에 젖꼭지와 함께 건조하여 보관합니다.



올바른 분유 준비방법



● 손과 주변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합니다.



● 끓여서 식힌 70°C 이상의 음용수를 사용합니다.
● 수유량의 1/2 정도의 음용수를 젖병에 붓습니다.



●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양의 분유를 넣습니다.
● 수유량까지 음용수를 붓습니다.



● 분유를 충분히 용해한 후 흐르는 물로 식혀 수유합니다.



올바른 수유 방법



● 분유는 용해한 후 즉시 수유합니다.



● 부득이한 경우에도 용해한 분유는 냉장고에서 24시간 이내로 보관합니다.



● 먹다 남은 분유는 다시 수유하지 말고 반드시 버립니다.

● 선식을 이유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.

- 선식과 선식 원료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어 영·유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- 70°C 이상의 끓는 물에서는 사카자키균이 사멸됩니다.

● 부득이 선식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인된 영유아용을 사용합니다.

